

충남소방본부, 천안 태조산공원에 '충청남도 안전 체험관' 개관

☎ 박주환 기자 (bumpark31@naver.com) | ⌚ 승인 2016.03.15 12:12



▲ 14일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개관식에서 주요내빈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소방본부(본부장 한상대)는 14일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공원 내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에서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에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 양승조·박완주 국회의원, 충남도의원, 구본영 천안시장, 주명식 천안시의회 의장, 천안시의원, 한옥동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재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 한상대 충남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소방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식전행사로 백석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플래쉬몹

공연과 온양 권곡초등학교 학생들의 119소방동요 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국민의례와 소방본부 화재대책과장의 경과보고, 안희정 도지사의 식사, 김기영 도의회 의장의 축사, 구본영 천안시장의 환영사, 테이프커팅에 이어 체험관 관람순으로 진행했다.

안전체험관은 연면적 5795m², 지상 4층의 건축물로 7개 분야 15개 체험시설을 설치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층별 주요 체험시설을 살펴보면 ▲1층 어린이안전체험관, 상설전시관 ▲2층 4D영상관, 고층화재체험관, 도시철도사고체험관으로 구성됐다.

또 ▲3층 태풍체험관, 수난안전체험관, 교통사고체험관, 산불·산사태체험관, 지진체험관, 실내화재체험관 ▲4층 감염병예방학습관, 화생방대비체험관, 응급처치실습관, 소방시설실습관이 설치돼 있다.

특히 최근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발병으로 수난사고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도민의 안전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난안전체험관과 감염병예방체험관이 체험시설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로 설치됐다.

전체 체험시설을 모두 관람·체험하는 데는 2시간가량 소요되며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연령대별로 체험시설을 구분해 이용할 수도 있다.

입장료는 무료다. 방문 예약은 체험관 홈페이지(<http://safe.cn119.go.kr>)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 및 1월 1일, 명절연휴를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기타 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체험관 대표전화(041-559-9700)로 연락하면 된다.